제3강 - 영웅 아킬레우스와 트로이아 원정

(1교시)

◆ 아킬레우스는 누구인가

※ 학습목표

『일리아드』의 주인공이자 가장 뛰어났던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 알아본다.

▲ 아킬레우스의 족보

아킬레우스Achilleus는 펠레우스Peleus왕과 테티스Thetis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이다. 펠레우스는 테살리아의 프티아라는 왕국을 다스렸던 인간의 왕이며 테티스 여신은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의 딸이다. 테티스 여신이 인간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를 능가하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신탁 때문이었다. 아무리 저급 신과 혼인한다 하더라도 테티스 여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은 신을 능가하는 또 다른 신이 될 것이므로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테티스를 인간의 왕인 펠레우스와 혼인케 한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킬레우스다.

▲ 신의 피가 흐르는 가장 뛰어난 인간

그리스신화에서 인간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섬세하고 세밀하게 표현된 그림은 대단히 드물다. 인간 중에서 이렇게 도자기에 세밀하게 조각될 수 있는 것은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오뒤세우스와 같은 영웅들이다.

아킬레우스는 예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을 능가했다. 테티스는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의 딸이다. 그리고 펠레우스 왕은 제우스의 손자에 해당된다. 그러니 아킬레우스는 인간이지만 부계로는 제우스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모계로는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 불에 던져진 아킬레우스?

www.artnstudy.com

그리스 비극작품뿐만 아니라 그리스신화에서도 아킬레우스는 대단히 많은 작품의 기원이 되고 있다. 그만큼 아킬레우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방대하게 전해져오고 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서는 아킬레우스가 외아들로 묘사된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작품이 아닌 또 다른 비극작품들이나 신화에 의하면 아킬레우스는 펠레우스와 테티스여신사이에서 태어나는 일곱 번째 아들이라는 설도 있다.

그 전승들에 의하면 펠레우스와 테티스여신사이에서 아킬레우스 이전에 여섯 명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한다. 테티스여신은 자신의 자식들이 인간의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은 영원한 청춘을 간직하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고통 받으며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한 테티스는 여섯 명의 아들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들의 신체 속에 들어있는 필멸의 요소를 없애려 했다. 그 전승들은 테티스 여신이 아기를 낳자마자 그 갓난아기를 불 속에 집어넣었다고 전한다. 불에 던짐으로써 불이 필멸의 요소를 태워주기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불꽃들은 자식들의 필멸의 요소를 태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태워버렸다. 그렇게 해서 여섯 명의 아들은 모두 타죽고 일곱 번째 아들 아킬레우스도 태어나자마자 불구덩이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펠레우스가 알아채고 끄집어냈다는 것이다.

펠레우스는 아킬레우스를 입술과 턱과 오른발목만 탄 채로 꺼낼 수 있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상완, 발목뼈를 켄타우로스인 케이론에게 부탁해자 케이론은 생전에 달리기에 능했던 다미소스라고 하는 거인의 무덤을 파헤쳐 그 오른쪽 발목뼈를 어린 아킬레우스의 발목뼈와 교체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아킬레우스가 달리기에 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그리스신화의 여러 가지 전승

그리스신화에서는 하나의 이야기에 대한 수많은 전승들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에로스의 탄생신화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신이 어떻게 탄생했느냐에 관련해 일곱 가지의 전승이 있다.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찾는 방법 역시 오늘날 그리스 신화를 연구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작업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승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만약 이와 같은 전승이 옳지 않다 하면 옳지 않은 이유를 대야 한다.

헤파이스토스가 뜨거운 열기와 풀무질 때문에 추남이자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하는 전승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그리스 신들로부터 신성을 박탈하는 이야기다. 우리는 원래대로의 그리스신화를 통해서 고대그리스인들이 가졌던, 궁극적으로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좇아가야 한다. 헤파이스토스의 이런 전승은 기독교 문명에 의해서 각색된 그리스신화라고 할 수 있다.

▲ 호메로스의 전승이 옳은 이유

테티스 여신이 자식을 불에 넣었다는 전승 역시 테티스여신의 신성을 박탈해야 가능하다. 여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자식을 불에 집어넣으면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리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필멸의 요소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여신인 본인이

www.artnstudy.com

더 잘 알 것이다. 따라서서 이 전승은 옳지 않다.

또한 다미소스의 발목뼈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아킬레우스는 이미 모든 인간을 능가하므로 그 어떤 인간보다도 달리기에 능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인간보다도 명석하고 신체적으로 뛰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아킬레우스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호메로스의 전승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펠레우스와 테티스 여신에 의해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었을 것이다.

▲ 스틱스 강

아킬레우스는 모든 인간을 능가하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인간의 운명을 살아가는 존재다. 여신인 테티스는 아들이 비록 죽을 운명이라도 그것을 늦추기 위해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 강에 목욕시킨다.

스틱스강은 그리스신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강이다. 스틱스는 타르타로스 앞을 휘감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불멸한다고 생각했다. 사후 육체로부터 이탈된 영혼은 제일 먼저 비통의 강 아케론Acheron을 건너고 플레게톤(불의 강)을 건너 레테(망각의 강)도 지나면 벌판이 나타나고 그 곳엔 세 명의 심판관이 앉아있다고 한다. 이들에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오른쪽, 그렇지 못했던 영혼들은 왼쪽으로 가게 된다. 오른쪽은 엘리시온이라고 하는 실낙원이고 왼쪽은 타르타로스라는 무한지옥이다. 왼쪽으로 심판을 받은 영혼들이 타르타로스를 가기 전에 거치는 강이 바로 스틱스 강이다.

스틱스강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무생물을 집어넣으면 쇠나 돌이라도 녹여버리고 생명이 있는 것이 스틱스 강물을 마시게 되면 그것이 온몸에 독이 되어 퍼져 죽음을 맞게 된다. 또 한가지는 제우스를 능가한 12주신들의 맹세의 강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맹세를 할 때는 제우스나 혹은 자신을 수호해주는 신에 대고 하면 된다. 12주신이 아닌 저급한 신들도 맹세할 때 제우스나 12주신에 대고 맹세를 한다. 제우스를 제외한 12주신들이 맹세를 할 때는 바로 스틱스 강에 대고 한다.(고대그리스의 평등사상과 관련) 제우스라 할지라도 스틱스에 걸고 한 맹세를 절대 어길 수 없다. (EX>세멜레) 만약 스틱스에 걸고 한 맹세를 어기면 그 순간부터 향후 9년동안 암브로시아와 넥타를 취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목숨만 부지하는 상태로 되게 한다.

스틱스 강에 생명체가 담궈지게 되면 강물이 닿은 모든 부분은 불사의 은혜를 받게 된다.

▲ 불사의 은혜를 입은 아킬레우스

테티스 여신은 자신의 아들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시간을 늦추려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스틱스 강에 목욕을 시키고 불사의 은혜를 받게 된다. 실제로 아킬레우스는 전쟁을 통해 부상을 많이 입었을 테지만 불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무기로도 그 목숨을 앗을 수는 없었다. 테티스 여신은 아킬레우스가 스틱스 강물에 빠지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현재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는 발목을 잡고 목욕을 시켰다. (훗날 아폴론에 은궁에 이곳을 맞고 죽는다)

www.artnstudy.com

▲ 아킬레우스의 성장

아킬레우스는 어린 시절 켄타우로스인 케이론 밑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활쏘기를 배우는 아킬레우스의 모습이다. 그리스에 나오는 반인반마는 인간과 신의 중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켄타우로스 중 가장 뛰어난 것이 케이론이었다. 그는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가르친 적도 있으며 아폴론의 아들 오르페우스와 오뒤세우스의 스승이기도 했다.

아킬레우스는 프티아의 유일한 왕자였다. 따라서 왕위계승과 관련된 모든 수업을 받았다. 사냥과 말을 다루는 것, 의술, 노래와 리라연주, 세속적인 대한 경멸, 거짓에 대한 혐오, 절제, 정념, 고통에 대한 인내,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미덕 등을 케이론으로부터 교육받았다.

아킬레우스를 정념에 사로잡힌 전쟁광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스토아학자들에 의해 강요된 이론으로 옳지 않다.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전쟁 뿐 아니라 미덕에 관련된 교육도 받은,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www.artnstudy.com

제3강 - 영웅 아킬레우스와 트로이아 원정

(2교시)

◆ 트로이아 원정의 준비

※ 학습목표

그리스 연합군의 전쟁 준비과정과 이피게네이아 사건에 대해 알아본다.

▲ 여장한 아킬레우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의하면 아킬레우스가 네스토르, 오뒤세우스, 파트로클레스의 권유에 의해 그리스 연합군으로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전승에 의하면 테티스는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에 가면 살아오지 못할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을 모집하자 어린 아킬레우스를 여인국 뤼코메데스로 빼돌려 여장을 하고 지내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태어날 때부터 기골이 장대한 인물로 여장을 한다고 여자처럼 보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 연합군에는 칼카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참전하는데 그는 트로이아로 출전하기 전에 아킬레우스가 있어야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예언한다. 오뒤세우스가 뤼코메데스 왕국에 방물장수로 변장해서 들어가게 된다. 방물을 펼쳐놓으니 모든 여인들이 아름다운 장신구와 옷감에 관심을 가지는데 여장한 아킬레우스는 무기에 관심을 가졌다. 또 오뒤세우스는 문지기를 매수해서 적의 출현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해두었는데 나팔이 울리자 아킬레우스만이 숨지 않고 옷을 벗고 칼을 가지고 뛰어나간다. 그렇게 발각돼서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 몇몇 전승에 의한 것이다. 옳지 못한 전승이다.

▲ 아킬레우스에게 내려진 첫 번째 신탁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의하면 아킬레우스는 네스토르, 오뒤세우스, 파트로클로스의 권유로 참전하게 된다. 그때 아킬레우스에게 트로이아 전쟁 참전에 관한 첫 번째 신탁이 내려진다. 트로이아로 가게 되면 짧지만 명예롭게 살 것이고, 트로이아로 가지 않으면 오래 살긴 하겠지만 아무런 명성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고대 그리스 신탁 중 양자택일이 가능한 신탁은 거의 없다. 그리스 신탁은 일반적으로 조건절, 가정문(EX>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오이디푸스 왕의 아버지 라이우스가 받은 신탁)으로 이루어지며 조건의 형식을 띠지만 신탁은 사실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아킬레우스에게 내려진 이 첫 번째 신탁은 아킬레우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짧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해서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한다. 따라서 아킬레우스의 면모를 봤을 때 호메로스가 전하는 아킬레우스의 참전이 훨씬 설득력 있다.

www.artnstudy.com

▲ 돌아오지 못할 아들을 보내는 테티스

아킬레우스는 그리스연합군에 참전해 50척의 선단을 지휘하게 된다. 신화학자들은 그리스연합군에서 약 300척 이상의 선단이 출전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300여척 중 50여척의 배를 지휘한 것은 그의 탁월한 지휘능력과 전투력을 가늠케 한다. 그렇게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아킬레우스는 아울리스로 향한다. 아울리스는 그리스 연합군들의 집결지로 안테에 옆의 협곡 안쪽에 있는, 트로이아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곳이다.

이 때 테티스 여신, 자신의 아들이 참전하면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아는 어머니는 아들이 입게 될 무장과 말을 직접 내어준다. 무장은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 준 것이며 말은 포세이돈이 준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 12주신들은 죄 없는 테티스 여신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왕과 혼인한 것을 가슴아파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와 포세이돈이 투구와 갑옷, 말을 선물한 것이다.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갑옷과 투구(특정 인물을 위한 것은 아님)를 착용하고, 포세이돈 이 준 말을 타고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아로 가게 된다.

▲ 첫 번째 원정은 실패하였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따르면 그리스연합군은 바로 진군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역시 다른 작품에 의하면 아울리스에서 트로이아로 진군한 1차 원정이 실패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트로이아를 목적지로 항해했는데 상륙해보니 트로이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년의 준비기간 동안 그리스 전역의 뛰어난 영웅이 다 모이고 예언자 칼카스도 있었다. 그리스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선원과 항법사들이 항해했을 것이다.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했는데 백기를 잘못 잡아서 실패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전승에 의하며 그래서 재집결하는데 9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적 계산이 맞지 않는다. 1차 원정, 2차 원정은 없었다.

▲ 아르테미스의 노여움을 산 아가멤논

그리스 연합군들의 항법사들은 제퓌로스가 가장 잘 부는 날을 연구해 출전일을 정했다. (동방진출을 꿈꿨던 그리스에서는 동쪽으로 가게 하는 서풍 제퓌로스가 가장 중요한 바람) 출전일이 정해지자 총사령관 아가멤논왕은 자신의 병사를 데리고 가장 좋은 전쟁연습인 사냥을 벌인다. 이 마지막 사냥에서 아가멤논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사슴 한 마리를 자신의 화살으로 잡는다. 기분이 좋아진 아가멤논은 그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불경을 저지른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달의 여신이자 사냥의 여신으로 산짐승과 들짐승을 수호하는 여신이다. 아가멤논은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도 이렇게 훌륭한 수사슴은 잡아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고대그리스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불경한 언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이 인간에게 도전해서 실패하면 목숨밖에 갚을 것이 없다. 아가멤논은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분노를 산다.

그래서 출전일에 역풍이 분다. 이것은 자연이 아니라 신에게서 온 것이다. 예언자 칼카스에 의해 이것이 아르테미스의 노여움 때문임을 알게 된 그들은 아울리스로 돌아온다. (이 하루의 과정을 다른 전승에서 1차원정의 실패라고 확대)

www.artnstudy.com

다시 순풍이 불게 하려면 여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혀야 된다. 칼카스를 통해 내려진 신의 요구사항은 이피게네이아가 태어난 해의 수확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수확물을 여신에게 바치라는 것이었다. 이피게이아는 아가멤논과 왕비 클뤼타임네스트라 사이의 장녀다. 아가멤논에게 그 해의 태어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피게네이아다. 아르테미스가 제물로 원한 것은 바로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였던 것이다.

▲ 제물이 된 이피게네이아와 클뤼타임네스트라의 분노

이피게네이아를 바치지 않으면 2년의 전쟁준비기간이 수포로 돌아간다. 아가멤논은 자신의 왕국 미케네로 전령을 보내 아내 클뤼타임네스트라에게 전언을 전하게 한다.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칠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었던 아가멤논은 이피게네이아를 아킬레우스와 혼인 시킬테니 어서 보내라고 한다. 클뤼타임네스트라는 그 말에 속아 이피게네이아를 신부의 옷으로 단장해서 아울리스로 보낸다. 아울리스로 보내진 이피게네이아는 아킬레우스와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테미스 여신의 노여움을 다스릴 제단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피게네이아가 입었던 것은 결국 신부의 예복이 아니라 희생제복이었던 것이다. 희생제사는 흠 없는 희생제물을 준비해 피를 뿌리는 것이다. 아가멤논이 직접 자신의 칼을 들어 자신의 딸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찰나 가엾게 여긴 아르테미스는 안개를 짙게 깔고 아가멤논에게서 이피게네이아를 구해서 자신의 신전 여사제로 삼게 된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클뤼타임네스트라는 아가멤논이 10년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미케네로 돌아온 날 밤 자신의 정부와 함께 아가멤논을 죽인다. 클뤼타임네스트라는 자신의 첫딸이 희생당한 그 순간부터 남편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라 복수를 다짐했던 것이다. 그렇게 트로이아 출정 전, 그들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생긴 것이다.

www.artnstudy.com